



소설가 김별아

'단순한 열정'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박진영 | 2005년 신춘문에 평론부문 당선자

김별아의 작품 속에서는 끝없는 열정의 아름다운 세계라는 일관된 작가의식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순정한 파토스는 초기작에서부터 최근작 『미실』에까지 이어진다. 그녀의 소설에서 '열정'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의 가치이자, 필멸의 존재가 무한한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자전적 체험에서 역사적 상상력으로

체험은 절실한 실감을 담고 있지만 개인과 당대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반면 역사와 신화의 세계는 보편적 관념성을 상징하지만 구체적 일상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김별아 소설은 이 둘의 영역을 오가며 창작된다. 상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간극은 김별아 소설에서 서로 통한다. 이는 '순정한 열정'의 단일함이 김별아의 작품세계 전반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적 체험이 전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김별아의 초기작들은 후일담류로 분류될 수 있다. 등단작 <단힌 문 밖의 바람소리>(1993)를 비롯해 장편 『개인적 체험』(1999)과 소설집 『꿈의 부족』(2002)에 실린 <대관령>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의 서사는 주로 정치적 폭압에 맞서야 했던 작가의 대학시

절을 회상하는 데 바쳐진다. 여기에는 1991년의 5월 투쟁, 공단 노동자 생활, 변화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운동권의 모습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다. 작가는 특히 『개인적 체험』에서 “체험 없는 관념의 뿌리에서 자라난 소설은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새로 대중의 눈을 현혹시켜도 끝끝내 가슴까지 닿을 향기는 지니지 못한 무향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체험적 글쓰기가 단순한 소재의 차원이 아닌, 하나의 창작방법임을 밝힌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반성적 거리의 획득에 있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문학의 허구적 조형력과 객관적 거리감각의 결여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후 그녀는 역사적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서사를 선보인다. <삭매와 자미>, <꿈의 부족>, <8월 23일>이 변화의 징검다리에 놓이며, 『축구전쟁』(2002)과 『미실』(2005)이 이러한 특징을 본격적으로 보여준다. 변화의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후일담류에서 엿보이는 현실에 대한 환멸, 체험에 간혀 있던 초기작의 필연적인 결과, 그리고 인간 삶의 보편적 가치와 조건에 대한 작가적 관심.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초기작과 최근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관된 작가의식의 문제이다.

단적으로 말해 그것은 목적도 없고 한계도 모르는 끝없는 열정의 아름다운 세계를 뜻한다. 이러한 순정한 파토스는 변혁의 열정이 작동하고 있는 초기작의 반(反)자본주의적 태도로부터 출발해 최근의 화제작 『미실』에까지 이어진다. 김별아 소설에서 ‘열정’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이자, 필멸의 존재가 무한한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다수의 성(性)으로서의 여성을 이야기하다

김별아 소설에서 성, 혹은 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김별아 소설의 경우 페미니즘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여성/남성의 이분법 하에 강요된 ‘여성성’의 관습으로부터 출발해,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본능의 영역을 표상한다. 그러나 그것은 더 나아가 삶의 근원 내지 근거로서의 생명력의 차원을 환기하며, 중국에는 삶/죽음의 생(生)을 아우르는 하나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

『내 마음의 포르노그래피』(1995)는 여성의 성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는 자신의 성기를 처음 인식하게 되는 어린시절부터 출산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라는 ‘규범’과 끊임없는 갈등을 한다. ‘여성성’의 구속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여자로도 남자로도 살아갈 수 없었다. 여자이기 싫었고, 남자는 될 수 없었다”. 작가는 결말부분에 이르러 일각수 전설을 통해 순결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파헤친다. 절대순결의 상징인 일각수의 실체가 실은 코뿔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내 마음의 포르노그래피』에 의하면 금기와 도덕은 허위적으로 구축된 이념적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의 경계는 인간본연의 자유로운 생명력을 고갈시킬 뿐이다.



『신춘블루스』, 축산
『개인적 체험』, 실천문학사, 1999
『축구전쟁』, 웅진닷컴, 2002

왼쪽 페이지
다양한 문학적 실험들을 시도한 작품을
선보이는 소설가 김별아

Writer 김별아 소설의

지상적인 것을 위한 찬가는 물론

단순한 쾌락과 욕정의 충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별아 소설의 '단순한 열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현재'를

긍정하는 충만한 삶의 에너지에

놓인다.

김별아는 오늘날과 같은 성 모랄이 확립되기 이전의 신라를 배경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심화·확장시킨다. '미실'의 존재는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조형된다. 신라 제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미실. 자유와 활기를 상징하는 거침없는 생명력의 존재로서의 미실. 색공지신의 운명에 따라 진흥·진지·진평왕을 섬기며 아우 미생과도 정을 통하는 여인 미실. 또한 문장에 능할 뿐 아니라 사도왕후와의 권력동맹을 통해 정치의 중심에 서는 미실. 그녀를 통해 작가는 아름다움의 힘과, 도덕과 규율로 심판할 수 없는 "충만한 열정과 풍요로운 욕정"을 이야기한다. 미실은 궁극적으로 마음(心)에서 발원한 사랑의 열정으로 경계를 모르는 자이다. 그녀에게 금기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색을 이용해 그녀는 타자의 아픔을 치료하며 스스로 정화(淨化)된다. 이때의 성은 삶을 치유하는 것이자 생을 관장하는 본연의 가치로 자리한다.

김별아는 『화랑세기』에 전하는 미실의 존재를 창조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여성'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묻는다. 미실은 쾌락 원칙의 극단적 형태, 즉 미분화 상태에 대한 욕망을 몸으로 체현함으로써 분별을 모른 채 자아/타자, 주체/객체간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이렇듯 정체성이 무의미해지는 엔트로피의 영점 지점에서는 삶/죽음의 경계마저 무화된다. 『미실』은 진정한 여성성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의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끝까지 가는 자들, 사랑하다가 미쳐버려라

김별아 소설에 나타나는 '사랑'은 그 폭이 매우 넓다. 여기에는 타자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다하는 자들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포함된다. 사랑으로 미쳐버린 자들의 초상과 삶을 향한 뜨거운 운명애는 김별아 소설의 '단순한 열정'을 반복하는 기제이다.

사랑의 막강한 힘은 『미실』에서 숙명과 이화랑, 문노와 윤궁, 미실과 무수한 애인의 관계를 통해 빈번히 제시된다. 미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설원랑, 평생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세종, 그리고 지위와 명예보다 삼한을 통합하겠다는 소망보다 세속의 전륜왕이 되겠다는 염원보다 미실에 대한 사랑을 우위에 두는 진흥제. 더 나아가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의 '그녀'는 불혹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의 열정 끝에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녀는 "마지막 황홀을 향해" "구원도 귀환도 가능하지 않은 심연 속으로 투신"한다. 그 밖에 <삭매와 자미>에서의 죽음으로 완성하는, 자미에 대한 삭매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갈 데까지 간다. 사랑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불태운다. 스스로를 한계에 밀어붙이는 이들의 모습에는 그러나 열정의 아름다움과 함께 맹목의 고통이 새겨져 있다. 자기 파괴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이들은 지독한 사랑, 지독한 운명애를 보여준다. 이들의 무모한 열정에는 희미한 슬픔이 어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운명론과 운명애가 다르다 할 때, 이들

의 추락과 파괴는 『짜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의 ‘중력(衆力)의 영(靈)을 닮은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단순한 열정은 운명에 아모르 파티(amor fati)에 근접해 있다.

이에 발맞춰 작가는 흔히 우리를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 데려간다. 브레이크 없는 욕망으로 얼룩진 광기와 죽음의 한계상황이 그것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환자(〈지옥의 사랑〉), 색공의 세계(『미실』), 마녀사냥의 현장(〈8월 23일〉), 그도 아니면 사랑의 대가로 강간범으로 몰리거나(〈첫사랑〉) 사랑하는 사람의 트럭에 깔려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 현실. 이는 열정을 좇는 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막다른 골목의 설정에 다름 아니다.

〈꿈의 부족〉에서의 성인식의 의미 또한 이들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꿈의 신비를 믿는 ‘세노이’ 부족에게 성인식의 시련은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하여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과제”로 흔히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는 위험한 도전”을 수반한다. 자기를 시험하는 이러한 의식(儀式)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인간의 의지를 실천하며 그 수행능력에 의해 자신의 이름, 즉 정체성(identity)을 선사받게 된다. 역사적·신화적 상상력에 토대하여 씌어진 이 작품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에게 상징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인간에게 부여된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함을 스스로 창조하는 자이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들의 용기는 때로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뛰어넘는다. 사자(死者)들의 지하세계에 내려갔다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모험이 그 예이다. 영웅 이야기는 결국 자기(自己)를 다함(盡)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축구 전쟁』은 또 하나의 작은 영웅 ‘삐삐’에 관한 이야기로, 가난의 굴레 속에서 열세 살의 삐삐가 삶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삐삐는 학교교육을 받는 대신 좁은 구두박스 안에서 냄새나는 구두에 침을 발라 광을 내면서 고단한 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축구를 통해 그는 “그들의 비천한 생애 전체를 단번에 사랑할게 될 것만 같은 감격에 들뜬다.” “축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더없이 단순한 육체적인 열정 때문에 모순처럼 정신성이 고양되”며, “어두운 영혼 깊숙이 요동치던 심연의 광기가 축구라는 투쟁의 스포츠를 매개로 활화산처럼 터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코카 향에 의한 환각 장면-인간과 신, 동물과 식물이 한데 뒤섞여 함께 땀을 흘리며 축구 경기를 하는-은 『축구 전쟁』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몇몇 대목 중의 하나이다.

축구가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단순성 때문이다. “더 없이 단순한 가지 사실만 잊지 않고 있다면 충분했다. 우리가 있고, 적이 있다. 공이 있고, 그것을 상대의 골문 안으로 차 넣으면 된다. …… 전력을 다해 달리



『미실』 문이당 2005
『꿈의 부족』 문이당 2002
『내 마음의 포르노그래피』 이룸 2000

Writer 김별아 소설에

나타나는 '사랑' 은 그 폭이 매우 넓다.

여기에는 타자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다하는 자들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포함된다.

사랑으로 미쳐버린 자들의 초상과

삶을 향한 뜨거운 운명애는 김별아

소설의 '단순한 열정' 을 반복하는

기제이다.

는 것이다. 마음과 몸이 합일된 상태에 완전히 몰두하면 된다." 꼭 축구가 아니더라도 분별과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 무엇, 완전한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그 무엇을 통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이다.

중국의 후한 헌제 때를 배경으로 한 <삭매와 자미>에서의 '삭매'의 영웅적 면모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평생을 장수로 살아온 그에게 진정한 생의 궁정은 전투, 죽음과의 눈맞춤을 피하지 않고 싸우는 길 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전투의 상대는 서역의 흉노족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간이 아닌 자연, 악마와도 같은 강물과의 싸움이 그것이다. 자연을 상대로 한 기이한 대결에서 삭매가 이끄는 부대는 물을 찌르고 벼베 화살을 날린다. "그들은 다만 싸울 뿐이다. 싸움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할 뿐이다." 어리석은 이들의 미친 짓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싸움에서 그러나 그들은 승리한다. 그리고 삭매는 죽음의 운명을 예감한 마지막 전투에서 사랑하는 여인 자미를 먼저 해신(海神)에 바치고 자신도 높은 탁류 속으로 사라진다. 이때 그는 죽되 죽지 않는다. 그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인 것이다.

지상적인 것'을 위한 찬가

이러한 영웅성은 그러나 천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상적인 것'의 궁정을 통해서만 발현되는 인간적 가치에 속한다. 진정한 운명애는 우리가 밟 딛고 있는 땅, '지상의 것'으로부터 나온다. 삶의 현재, 육체와 본능이 중요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열정 자체의 아름다움을 넘어 목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지상적인 것의 궁정에 있을 뿐이다.

<8월 23일>에는 엄격한 신성을 수행하기 위해 '지상의 것'을 죄악시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육체와 본능, 젊음과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로사'는 자신의 몸을 상대로 상식을 초월한 가학적 기행을 일삼는다. 그러나 작가는 냉정히 그녀를 "엄연한 한 마리의 암컷"으로 묘사해 놓는다. 반면 '육체성'을 긍정하며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는 김별아의 다른 인물들은 어떠한가. 『미실』에서 신라가 내세웠던, 다음과 같은 신국(神國)의 도(道)가 이들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 "길지도 않은 지상의 삶, 육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여 영의 지고함을 드높이며 보내기에도 너무 짧지 아니한가? 남과 여는 기꺼이 소리 높여 교합하고, 아름다운 육신을 가진 이는 마음껏 단장하여 뽐내고, 노래하고 춤추며 생을 찬미하는 일이 신명이 바라는 바로 그것이라."

김별아 소설의, '지상적인 것'을 위한 찬가는 물론 단순한 쾌락과 육정의 충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별아 소설의 '단순한 열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현재'를 긍정하는 충만한 삶의 에너지에 놓인다. 김별아에게는 당분간 『미실』의 작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겠지만 다음 작품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것은 왜일까. 🌈